

## 2019학년도 보궐선거 종료돼



▲동아리연합회 '한아름' 박주영(우)·윤정아(좌) 당선자

지난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트랙·학부(과) 보궐선거와 27·28일 양일간 시행된 동아리연합회 보궐선거를 끝으로 올해 학생 자치기구를 이끌 대표가 모두 선출됐다.

동아리연합회 후보자 등록은 지난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다. 이후 13일부터 26일까지 후보 유세가 이어졌으며, 21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낙산관 대강당에서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투표는 상상관 로비 및 미래관 앞에서 치러졌다.

동아리연합회 보궐선거는 기호 1번 '약속' 과 기호 2번 '한아름' 두 팀이 입후보해 경선으로 진행됐다. 개표 결과 재적인원 376명 중 210명(55.85%)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약속' 97명(46.19%), '한아름' 111명(52.86%), 무효 2명(0.95%)으로 '한아름' 선거운동본부의 박주영(부티 3) 후보와 윤정아(컴공 3) 후보가

각각 동아리연합회 정회장과 부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들의 주요 공약은 ▲물품 대여 사업 ▲타 대학 동아리와의 교류 등이다. 윤 당선자는 "바쁜 새학기에 저희 보궐선거 일을 도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한다. 학우들이 '한아름'에 던져준 표를 잊지 않고 1년간 열심히 일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 당선자는 활동 계획에 대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개설하고 상주 시간을 늘려 동아리원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디자인대학을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이 트랙·학부(과)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18일부터 20일까지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이하 사회과학대) 소속 트랙·학부(과) 보궐선거가 진행됐으며, 20·21일에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이하 인문예술대)과 IT공과대학

(이하 공과대) 소속 트랙·학부(과) 보궐선거가 동시에 시행됐다. 사회과학대와 인문예술대 투표는 탐구관 및 상상관 로비에서, 공과대 투표는 공학관 B동 3·4·5층에서 각각 진행됐다.

이번에 보궐선거를 실시한 트랙·학부(과)는 인문예술대 ▲문학문화콘텐츠트랙 ▲한국어교육트랙 ▲영미언어정보트랙 ▲영미문학문화트랙 ▲도서관정보문화트랙 ▲동양화전공 ▲영어영문학부, 사회과학대 ▲기업경영트랙 ▲회계·재무경영트랙 ▲벤처경영트랙 ▲금융·데이터분석트랙 ▲기업·경제분석트랙 ▲경제학과 ▲경영학부, 공과대 ▲컨설팅트랙 ▲기계설계트랙 ▲기계자동화트랙 ▲전자트랙 ▲정보시스템트랙 ▲사물인터넷트랙 등이다. 또한, 선거를 진행한 모든 트랙·학부(과)는 대표가 선출됐다.

정명아 기자

mhbtd0330@naver.com

## 개편된 조교제도 운영 '청신호'... 재학생도 조교 임용 가능해져

우리학교는 지난 3월 1일부터 개편된 조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편된 제도에 따르면 기존 행정조교는 행정연구원과 교육조교(TA)로 분리돼 운영된다. 이 중 행정연구원은 기존의 행정조교처럼 학부(과) 또는 트랙의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주 업무로 처리한다. 신설된 교육조교는 수업지원 및 실습지원 등 수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며, 졸업생만 지원할 수 있었던 기존의 조교와는 달리 학부 3·4학년에 한해 재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트랙제에 맞춰 조교 배정 방식도 대학본부 중심에서 단과대학 중심으로 변경됐으며, 교육조교를 대거 채용함에 따라 조교 인원수도 크게 늘렸다.

행정연구원은 주 37.5시간 동안 근무하며, ▲담당 트랙의 학사 업무 및 학생지도 지원 ▲실습실 및 기자재 관리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교육조교는 주 30시간 동안 근무하고, ▲담당 트랙의 실습실·수업 및 연구수행 보조 ▲실습실 및 기자재 관리를 전담하며 ▲담당 트랙의 학사 업무 및 학생지도 지원을 보조한다.

한편, 졸업생만 지원이 가능한 행정연구원과는 달리, 교육조교는 ▲학부 3·4학년생 ▲졸업유예학생 ▲수료생 ▲대학원생이 지원 가능하다. 또한 급여가 장학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도 행정연구원과의 차이점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조교는 학기 중에만 업무를 보기 때문에 방학 중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조교 배정 방식도 달라졌다. 행정연구원은 단과대학별로 2개 트랙당 1명이 배정됐으며, 교육조교는 각 트랙당 1명씩 배정됐다. 단, 실습트랙과 재학생이 300명 이상인 트랙의 경우 교육조교 1명이 더 총원됐다. 이는 단과대학별 특성에 맞게 학과와 학부(과) 또는 트랙장의 협의하에 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50명이었던 조교 인원수도 크게 늘어났다. 행정연구원의 수는 26명이나, 교육조교를 85명까지 총원하면서 총 인원은 111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번 개편 배경에 대해 정순선(총무인사팀) 차장은 "학생지원 업무를 단과대학 중심으로 운영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트랙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최재희(한국어문 4) 학생은 "학교에서 일을 한다는 점, 수업시간에 맞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며 "대학원 진학 시에도 교육조교를 계속할 수 있어, 진학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가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 기자사령

임수습기자 권다빈(인문 1)  
박희연(사회과학 2)

### 동정란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한성대신문사(내선 4186)로 문의바랍니다.

## 제14회 한성인 글쓰기 대회

### 대회일정

**대상**  
한성대학교 재학생

**목적**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 확장 및 글쓰기 능력 향상

**일시**  
2019년 5월 16일 목요일 오후 4시~오후 6시  
(\*실제 글쓰기 시간 100분)

**장소**  
낙산관 대강당

**주제**  
대회 당일 현장 공지

**준비사항**  
신분증(학생증 혹은 주민등록증), 필기도구(펜 사용)  
\* 대회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주시길 바랍니다.

### 안내사항

**신청기간**  
2019년 4월 29일(월) 오전 9시 ~ 5월 13일(월) 오후 5시 \*선착순 300명

**신청방법**  
① 글쓰기센터 홈페이지(https://writer.hansung.ac.kr)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② 작성한 신청서를 이메일(contest4354@hansung.ac.kr) 발송 또는 직접 제출

**상금 및 비교과 포인트**

시상 내역	상금	비교과 포인트
최우수상 (1명)	50만 원	60점
우수상 (4명)	20만 원	50점
장려상 (5명)	5만 원	40점
대회 참여	-	20점

\*수상 결과는 6/7(목) 발표 예정

- 대회 참가 시간과 수업이 겹칠 경우 출석 협조문 발급 가능합니다.
- 글쓰기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공지 및 2018년도 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사고와표현교육과정 02-760-4354 | 진리관 104호

# ‘훅’ 들어온 상상파크에 ‘악’ 소리 나는 회화과

최근 학내 커뮤니티인 ‘한성대학교 대나무숲’과 ‘에브리타임’에서 회화과가 게재한 서명운동 글이 화제가 됐다. 글쓴이는 자신을 회화과 소속이라고 밝히면서 학생들의 서명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서명운동 링크를 첨부했다. 서명부전문에서 회화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대학본부가 회화과와 사전 협의 없이 (회화과 졸업전시회 장소인) 연구관 전시실 폐쇄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현재 대학본부는 그 자리에 VR/AR센터(정식 명칭 상상파크)를 만들 계획”이라고 사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타 단과대학생, 타 대학생 등을 포함한 학생 499명(4월 9일 기준)이 서명하면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회화과 측은 이번 전시실 폐쇄로 졸업전시 준비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호소했다. 비대위 소속 최학윤(동양화 4) 학생은 “본래 1년 전부터 전시실을 대관하고 지금은 전시작품을 구상해야 하는 때지만, 학교 측이 올해 들어서야 갑작스레 전시실 폐쇄를 통보해 작품을 준비할 시간을 전시실을 몰색하는 데 보내야 했다”며 “결국 인사동 인근 전시실을 1주일간 빌렸는데, 대관료로

600만 원이 들어 이 학생 13명의 사비로 충당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일방적인 통보에 일부 회화과 교수들도 당혹스러워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현이(예술학부) 교수는 “학교는 우리 과 교수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전시실 폐쇄를 단행했다. 또한, 폐쇄한다는 사실조차 학생들 사이에서 도는 풍문으로 알음알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본부는 학생 전체의 편익을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종석(시설지원팀) 과장은 “기존 전시실 자리에는 VR/AR센터 시설이 포함된 상상파크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학교의 유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상파크를 짓게 된 배경에 대해 박 과장은 “수원대학교, 건국대학교 등 일부 대학에서 먼저 VR 센터를 개설했다. 우리학교도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추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나와, 이번에 공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상상파크는 여름방학 중 착공해 오는 9월 중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실제 공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번 조치로 학생들이 졸업전시 준비에 불편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박 과장은 “상상관 로비를 최대한 활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관 전시실에 비하면 유동 인구가 많고, 실제로 여러 전시가 그곳에서 열리고 있다. 오히려 전시 효과는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전했다. 또, 회화과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계획을 추진했다는 주장에 박 과장은 “상상파크 운영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리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회화과 측은 이러한 입장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김지윤(서양화 4) 비대위원장은 “만약 상상관 로비에서 작품을 전시하게 되면 여러 예로사항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상상관은 유리 외벽으로 투영되는 햇빛 때문에 그림의 색채가 제대로 비치지 않는다. 때문에 흰색 가벽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우리 과가 기존 전시실을 이용했을 당시에도 대학본부가 시설 관리를 우리에게 떠맡긴 적이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지난 2012년, 연구관 전시실에서 열린 회화과 전시회

사진제공 : 회화과

미루어볼 때 전시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은 대학본부가 우리 학과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에 대해 “전시장에 전시를 원하는 학과마다 전시 형태 및 구조가 달라 학과에서 직접 조명을 배치하게 한다. 필요한 조명도구

및 장비는 지원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4월 11일 번대중 총무처장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총무처장을 만나 우리 과의 사정을 알렸으나 별 소득이 없었다”며 “앞으로 전시실을 자주 이용했던 동아리와 함께

여론을 확산시킬 것이며, 언론사 제보를 통해 우리 문제를 대학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대학본부 측은 “현재 내부회의 중이며, 추후 확정된 사안이 있을 시 답변하겠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윤희승 기자** yoonihng@gmail.com

## 교직원 사칭 ‘사기판매’ 주의보, 신입생 피해 속출해

지난 3월, 교내에서 교직원을 자칭한 사람이 신입생을 상대로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판매한 것이 ‘사기판매’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학내 커뮤니티에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속속들이 게시됐다. 이에 대학본부는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판매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한 부정을 내비쳤다. 또한 해당 업체는 총학생회 혹은 과대표의 허락을 구했다는 언급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고, 총학생회는 이에 협력한 사실이 없으며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한 상태다. 제보에 따르면 방문 판매원은 수업 중인 강의실에 들어와 자신이

‘학생장학팀’의 직원이라 소개한 뒤, 공인영어시험인 TOEIC의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판매했다. 또한 그는 수강권을 구매하면 교육비를 환급해주는 교내 장학금인 ‘교육훈련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선착순 200명만이 수강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구매를 유도했다. 그러나 해당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제대로 접속조차 되지 않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학생 모두에게 실구매의사와 관계없이 먼저 교재를 발송한 후, 이에 대한 대금을 요구한 것이 밝혀지며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심지어 학생들이 구입한 수강권은 실제로는 사용조차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조하나(상상력 1) 학생은 “본래 토익을 공부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수강권을 구입했다. 사용등록을 하려고 번호를 입력했는데 이미 등록된 번호라고 했다”며 “다음날 판매사에 전화해 항의했다더니 간혹 번호가 한두 개 잘못 입력된 경우가 있다면서 직접 등록해주겠다고 했다. 이후 환불을 요청했더니 교재를 반송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교직원을 사칭했다는 제보에 대해 대학본부는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안상욱(학생장학팀) 팀장은 “학생장학팀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판매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더 이상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과 낙산의 메아리 등에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강의실 등 교내에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즉시 종합상황실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판매사는 교직원을 사칭했다는 사실은 오히려 해명했다. 판매사인 ‘넥서스 N 토익’ 측은 “방문판매를 할 때는 회사를 밝히고 판매한다”며 “간혹 우리가 해당 대학 총학생회와

과대표의 허락을 받고 교내에 들어왔다는 말을 착각해 사칭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호재(무역 4) 총학생회장은 “판매사가 총학생회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이전에 해당 판매사에서 총학생회에 제휴를 요청한 적이 있으나 거절했다”고 일체의 협력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초지종을 파악한 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한편, 이와 같은 사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8조에 의해 환불이 가능하다. 제7조에

의해 방문판매업자는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재화를 지급하는 방법과 시기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제8조에 의해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에 남세현(한국소비자교육원) 담당자는 “상품의 표시가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청약철회 기간이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 #한성 #타임라인

#### HANSUNG 해외인턴십 모집

취업지원팀이 오는 4월 19일까지 ‘HANSUNG 해외인턴십(미국)’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해외인턴십은 학생들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해외 기업에서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본교 재·휴학생 중 평균 평점 3.0 이상이고 일정 점수 이상의 공인영어성적 또는 교내 영어캠프 관련 자격을 충족하는 학생이다. 최종 선발될 경우 캘리포니아 등 미전역의 기업에서 12개월 동안 ▲사무행정 ▲마케팅 ▲패션 ▲디자인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참가 희망자는 모집기간 내에 참가신청서·성적증명서·공인영어증명서 등 서류를 취업지원팀에 직접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 합격자는 23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이 진행된다. 면접에는 간단한 영어 질의응답도 포함된다. 이후 26일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이소현(취업지원팀) 담당자는 “해외인턴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과전 인원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프로그램에 임하는 명확한 동기와 계획을 가지고 지원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곽다빈 기자** kdb1478@daum.net

#### 재학생 무료 건강검진 실시

오는 5월 31일까지 우리학교가 재학생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검진 대상자는 외국인 유학생을 비롯한 재학생 전체다. 검진을 희망하는 학생은 실시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강남과 종로에 위치한 하나로의료재단에 내원하면 된다. 검진기관을 방문할 때는 학생증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한 검진을 오전에 받는다면 전날 자정부터, 오후에 받는다면 당일 아침부터 급식해야 한다. 흡연도 최대한 삼가야 한다. 검진은 약 30분간 ▲소변검사 ▲심장질환 ▲빈혈 ▲혈액검사 등 총 16가지 절차로 진행된다. 검진 결과는 검진 후 2~4주 사이에 이메일로 발송된다. 결과에 이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의료진에게 상담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권후관(건강관리실) 차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학교의 특성상, 감염병 유행 시 병원체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됐다”며 “학생들이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꼭 건강검진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희연 기자** heeyeun96@naver.com

#### 엘리버드 조식 프로그램 시행돼

학생장학팀이 지난 3월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엘리버드(Early bird) 조식 프로그램(이하 조식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조식 프로그램은 신규 기숙사인 상상빌리지 개관으로 교내에 거주하는 학생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 패턴 및 건강한 신체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조식 프로그램은 학기 중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 학생식당에서 운영되며,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에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다. 프로그램 신청자는 평일 내내 조식이 제공되는 ‘월식’과 원하는 요일에만 식사할 수 있는 ‘요일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조식 비용은 한 끼당 3,500원이다. 단, 사전 신청한 요일 중 실제로 총 50% 이상 출석해 식사를 할 경우 금액 일부가 환급되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배려대상인 경우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을 거치지 않은 현장 결제의 경우 조식의 가격은 4,000원이다. 금번 프로그램에 대해 송진기(학생장학팀) 담당자는 “신청 인원이 적으면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장선아 기자** suna0913@hansung.ac.kr

# 뛰는 '현실' 위에 나는 '디지털' 범죄, 대학가를 뒤흔들다

지난 3월, 연예인 정준영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런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비단 남의 일만은 아니다. 실제로 대학가에서는 이런 범죄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다. 작년 6월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총 5개의 대학에서 발생한 남자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부터, 올해 3월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대학교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까지, 끊임없이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들은 대학사회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

## 은밀하게 빨라지는 디지털 범죄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 사전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말한다. 즉,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이뤄지는 성범죄란 뜻이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각종 생활용품으로 둔갑한 디지털 카메라 등이 제작되면서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 또한 일단 영상물이 유포되면 전파 속도가 빠르고, 지우기도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심각성 역시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총 2,379명의 피해자가 디지털 성범죄를 신고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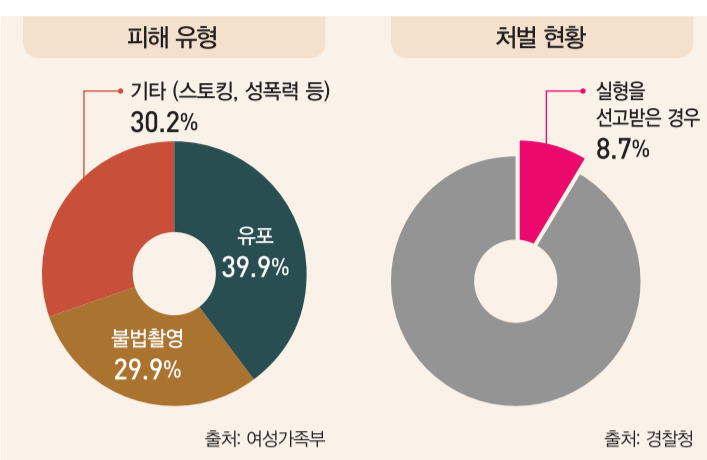
총 피해 건수 5,687건 중 유포 피해가 2,267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촬영이 1,699건(29.9%)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불법 촬영 피해 1,699건 중 1,282건(75.5%)은 유포 피해와 함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효린(한국성폭력상담소)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는 본인이 범죄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피해자가 지인을 통해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제3자가 미처 피해자 본인에게 알리지 못하고 대리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 가해는 가깝고 체포는 멀다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주목할만하다. 상기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촬영자는 대부분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 또는 '아는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불법 촬영 1,699건 중 1,107건(65.2%)에 해당하는 수치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피해자는 가해자를 신뢰하고 안심하기 때문에, 본인이 불법으로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을 노린 범죄가 과반수를 훌쩍 넘는 것이다.

촬영물이 유포된 플랫폼이 어디인지에 따라서도 가해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유포된 곳이 해외에 서버를



뒀거나 해외 업체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라면 국제수사공조를 통해서만 가해자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마저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대표는 "피해자는 본인의 모습이 담긴 촬영물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경찰 신고조차 어려워한다. 또한 신고 후에도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아 좌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 법은 있어도 처벌은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저조한 처벌 실효성이다. 대법원이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디지털 성범죄로 체포된 피의자 7,466명 중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는 단 647명(8.7%)에 불과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고 있다. 그중 제14조는 불법 촬영물을 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피해 사례를 반영한 양형 기준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는 범죄는 재판부가 자의적 판결에 따라 형량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디지털 성범죄건에서 구속과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드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에 김도우(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자가 불구속으로 수사되는 점으로 볼 때, 현행법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법이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범죄' 근절은 '소비' 근절로 완성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가벼운 인식도 큰 문제다. 인터넷에 불법으로 유포되는 '사이버 음란물'을 소비하는 문화가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되고 있다. 특히, SNS와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서 판매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김 교수는 "불법 촬영물의 공급과 수요를 함께 차단해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스스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행위가 떳떳하지 못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후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 불법 촬영물을 소비하는 문화와 산업 구조가 존재하는 한, 디지털 성범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수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수민 기자  
sf11228@naver.com



## 논란 속의 선거제 개편안, 그 내용은?

지난 3월 1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여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잠정 합의했다. 이를 발표한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편안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실제 선거제 개편 가능성은 미궁 속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갈등의 중심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즉, 정당투표에서 얻은 득표율만큼의 의석수를 보장받는 제도로 이해하면 된다. 종전의 비례대표제의 경우, 지역구 선거와 별개로 치러졌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와 연동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지역구 선거 결과, 보장받은 의석수보다 적은 수의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다. 단, 거대정당의 경우 지역구에서 정당득표율로 보장받은 의석수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번 개편안은 국회의원석 정수를 총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는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리기로 합의됐다. 여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예로 들어보자. 만약 A정당이 10% 정당득표율을 얻었다면, A정당이 보장받는 의석수는 총 30석이다. 이때, 지역구에서 20석이 당선된다면 A정당은 30석에서 20석을 뺀 10석을

비례대표로 가져간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은 앞선 것처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그중 50%만 반영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에 따르면 A정당이 가져가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10석이 아닌 5석이 된다. 이러면 거대정당이 정당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해서 생기는 초과의석이 발생될 가능성도 낮아지고, 거대정당의 부담도 한결 가벼워진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제 개편안에는 '석패율제'도 언급됐다. 석패율제는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 당선 가능성을 열어두는 제도다. 이를 도입함으로써, 대구와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 호남지역에서 자유한국당 후보자가 비례대표로 배출될 여지가 있게 해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석패율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음선필(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석패율제는 정작 비례대표로 선출되어야 할 전문가, 소외계층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제약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도 음 교수는 "선거제 개편은 정당 간 의석 다툼의 성격이 지닐 수밖에 없다"며 "어느 개편안이 정치세력에 대한 '선거권자의 정치적 통제'를 얼마나 더 확보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정당이 10% 정당득표율을 얻었다면, A정당이 보장받는 의석수는 총 30석이다. 이때, 지역구에서 20석이 당선된다면 A정당은 30석에서 20석을 뺀 10석을

이가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 자유전공학부 도입 '좌충우돌' 10년, 안정화될 수 있을까

전공 구분이 자유로운 자유전공학부가 대학사회에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을 맞았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자유전공학부는 10년째 폐지와 신설을 거듭하며 안정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제정한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자유전공학부 개설 이력이 있는 53개 대학 중 현재까지 운영·유지하고 있는 대학은 28개로 집계됐다. 반면,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와 같이 자유전공학부를 폐과한 대학도 23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자유전공학부, 시작은 창대했으나...

지난 2009년, 자유전공학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 설립과 시기가 맞물리면서 대학가의 새로운 교육 모델로 등장했다. 자유전공학부는 의대, 치대, 사범대 등 일부 특수학과를 제외한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선택·이수할 수 있으며, 학생 개인의 관심과 목표에 맞추어 전공을 설계할 수 있어 많은 학생들에게 주목받았다.

하지만 ▲2학년 진급 시 특정 인기학과 쏠림 현상 ▲전임교수 부재 ▲부실한 교육과정 ▲학교 측 지원 부족 등의 이유로 자유전공학부를 폐과하거나 폐과를 고심하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연세대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인기학과에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학생을 받지 못한 비인기학과와 정원 미달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결국 두 대학은 각각 통폐합과 폐지를 택하면서 자유전공학부의 문제점을 알리는 시발점이 됐다. 이에 대해 이원석(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전문위원은 "자유전공학부가 인기학과를 지망하기 위한 중간 통령으로 인식되면서 특정학과 쏠림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자유전공학부가 넘어야 할 '산'들

일반적으로 자유전공학부는 1학년 동안 전공을 탐색한 뒤, 2학년 때 본인의 주전공을 선택하는 구조다. 하지만 상기한 것처럼 주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특정학과에 인원이 편중되기에, 관련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과학기술원은 신입생 전원을 학과 구분 없이 단일학부로 뽑는데, 올해 원자력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최근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전기전자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은 190명으로 2년 전에 비해 50% 가까이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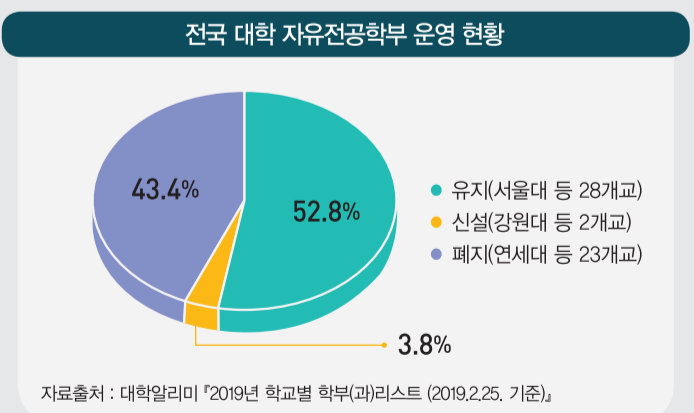
또한 학생들을 책임지고 지도할 전임교수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자유전공학부가 학과 특성에

결맞는 융합학문의 교육과정이 미처 정립되기도 전에 신설됐고,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수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전문위원을 따로 배정해 학생과의 면담 진행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등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유전공학부에) 최소 20명의 전임교수가 있어야 학생들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다"며 전임교수 확충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학교의 지원 부족 ▲소속감 부재 ▲강제 통폐합·폐지 후 혼란 ▲수강신청 경쟁률 과열 등 자유전공학부를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상황이다.

## '자유전공'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유전공은 여전히 대학과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다. 학생들은



창의적이면서도 유연한 전공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자유전공의 가장 큰 장점으로 손꼽았다. 지방 소재 대학의 자유전공학부에 재학 중인 A씨(21)는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해 강의를 수강하면서 나만의 전공 설계가 가능해졌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한 대학도 있다. 한국항공대학교와 강원대학교가 각각 2018학년도, 2019학년도부터 자유전공학부를 설치해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유전공학부가 대학사회에서 어떻게 안착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 걸어서 덕질 속으로

덕질 변천사 1996-2019

문화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덕질'. 영화, 연예인, 만화 등 저마다의 관심분야가 다양하겠지만, 가장 '핫'한 분야를 꼽는다면 단연 '아이돌(idol)'이다. '팬덤(fandom)'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아이돌 덕질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돼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오프라인 위주로 팬 활동을 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SNS 없는 덕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온라인을 중심으로 덕질 방법과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단지 연예 기획사나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해 SNS를 통해 공유·판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의 팬덤은 어떻게 활동했던 걸까? 과거와 현재의 덕질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 인터넷 없는 덕질, 상상은 해봤나?

아이돌 팬덤의 역사는 1996년 'H.O.T.'의 데뷔와 함께 시작됐다. 당시에는 소속사가 운영하는 공식 팬클럽에 가입하는 것이 팬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 팬클럽 위주로 정보가 공유됐기 때문이다. 팬클럽은 각 지방에 지부를 두고 있었는데, 지부별로 회장이 존재해 지방 팬들은 지부 회장을 통해 정보를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아이돌 그룹 '신화' 팬클럽 '신화창조' 6기였던 정유미(31) 씨는 "그때는 휴대폰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 거의 소문으로 정보를 얻었다. 지부 회장이 어디 학교라더라, '어느학교 누가 팬클럽 가입했다더라'라고 소문이 나면 몇 다리씩 건너 연락을 했었다"고 회상했다.

콘서트 티켓팅도 직접 발로 뛰어야 했다. 지금처럼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클릭 몇 번으로 티켓을 배송받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종이 티켓을 팔았기 때문이다. 직접 서울에 갈 수 없는 지방 팬들은 지정된 장소에 모여 팬클럽에서 구매한 티켓을 선착순으로 배부 받았다.

팬덤 혹은 아이돌과 관련된 상품인 '굿즈(goods)'도 다양하지 않았다. 지금은 '굿즈'라는 단어가 팬덤 용어로 정착될 만큼 굿즈가 아이돌 시장의 일부로 자리잡았지만, 당시에는 팬덤을 구분할 수 있도록 기획사에서 지급한 우비와 풍선이 전부였다. 현재 가장 흔하게 유통되는 '포토카드(Photo Card)'조차 기획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정 씨는 "포토카드는 문방구에서 코팅

해서 팔거나, 직접 인쇄해서 코팅해 소장했다. 배지나 열쇠고리도 잡지 사진을 구해서 문방구에 가져가면 기계로 눌러 만들어졌다. 지금처럼 콘텐츠가 다양하지 않아 소장하고 볼만한 자료도 잡지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잡지에 달려오는 부록도 소중한 자료였다. 비록 이곳저곳에서 인터뷰한 것을 짜깁기한 어설픈 내용이었지만, 소장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카세트테이프와 CD를 모으기도 했다. 소장 목적이 있지만 음원이 존재하지 않던 당시에는 음반 판매량이 가수의 음악방송 순위와 연말 시상식 수상에 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 없어? 그럼 내가 만들지 뭐!

2000년대에 들어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팬덤 활동의 형태도 변화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돌 시장에서 팬덤의 지위 변화다. 팬들이 기획사가 생산한 콘텐츠를 구매하는 '소비자'에서 스스로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생비자(프로슈머)'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는 대부분 SNS를 위주로 공유된다.

프로슈머로서 가장 대표적인 팬의 형태는 바로 '찍덕(사진을 찍는 덕후)'이다. 다른 말로 '휴머(휴페이지 마스터)'라고도 하는데, 팬페이지나 SNS 계정을 개설해 자신이 직접 찍은 고화질 사진과 동영상 공유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아이돌 시장은 찍덕 없이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들이 팬덤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대단하다. 대부분의 팬들이 이들이 찍은



▲1세대 아이돌 그룹 '신화'의 굿즈, 잡지와 CD, 카세트테이프, 잡지 부록으로 달려온 수첩 등이다. 수첩에는 멤버들의 정보가 담겨있다. 사진제공: 정유미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팬덤에 유입되기 때문이다.

굿즈를 직접 제작해 판매하는 팬도 생겨났다. 트위터에서 굿즈를 판매하고 있는 망찌(@mangzzis2)는 "소장 가치가 있는 굿즈를 갖고 싶었는데, 언제까지나 누가 만들어주기만을 기다릴 수 없어 직접 제작하게 됐다"고 활동 동기를 설명했다.

아이돌 굿즈는 이렇게 팬들이 판매하는 '비공식 굿즈'와 기획사에서 판매하는 '공식 굿즈'로 구분된다. 비공식 굿즈는 스타의 실사 얼굴이나 그룹 로고가 새겨진 공식 굿즈와 달리,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를 2D 캐릭터화 하거나 팬들만 아는 별명을

새겨 일상생활에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 종류도 키링(key ring), 손거울, 시리얼컵, 캐릭터 스티커, 휴대폰 케이스 등 실용성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한편,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해 '선택적 소비'를 하는 팬들도 늘어나고 있다. 팬덤 내에서 스타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면서, 공식 스케줄 외의 콘텐츠 소비를 지양하는 것이다.

방탄소년단의 팬인 정수현(22) 씨는 "사진이 아무리 예쁘더라도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휴머의 사진은 소비하지 않는다. 행사에서 질서를 어긋고 지나치게 밀착해서 사진을 찍거나 스토크 수준으로 스타를 따라다니는 건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스타의 사진과 동영상이 활발히 공유되는 트위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도 '공출목(공형사진, 출근길 사진, 목격 사진) 지양'이라는 프로필을 내건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현대의 팬들은 콘텐츠뿐만 아니라 팬덤 문화까지도 능동적으로 형성해나가고 있다.

정영미 기자

mhbtd0330@naver.com



▲요즘 아이돌 그룹 팬들이 제작한 비공식 굿즈. 왼쪽부터 그룹 'NCT' 멤버 '재민'의 별명이 새겨진 손거울, '해찬'의 별명이 새겨진 휴대폰 케이스, '마크'를 일러스트로 그려 제작한 배지다. 사진제공: 내나별(트위터 @\_nanastar), 망찌(트위터 @mangzzis2), 지니(트위터 @LOVER\_0802)



## 죽음과 맞닿은 삶, 그 속에서 저항을 외치다

사후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일까. 삶의 종착지인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렵기 마련이다. 우리는 통상 '죽음'을 멀리해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반대로 '살아있음'을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산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죽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은 곧, 죽음이라는 종점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제1회 이상한 실험전 '엄마의 이상한 P'

에서는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죽어가는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실제 사람의 몸을 본뜬 이성 작가의 작품이 전시됐다. 이는 작가의 '우리의 몸 자체는 우리가 걸어온 삶의 모든 것'이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이상한 실험전은 현대미술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 전시기획사 이상아트가 마련한 릴레이 전시다. 이상한 실험전의 첫 주자인 이번 전시는 4월 28일

까지 종로예술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전시장에는 석고·회화 등 총 15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가 진행되던 지난 3월 30일, 이 작가는 그녀의 몸을 본뜬 만든 석고 작품 <The Nude, Dead mask>를 관객과 함께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녀는 "뱃줄에 손발이 묶여 바닥에 엎드려 있는 이 작품을 부수는 것은 '엄마'와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소소한 반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리아(이상아트) 큐레이터는 "작가는 관객 스스로가 현대미술의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하는 데 주체적으로 참여했음을 전하고자 했다"며 "우리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함께 소통했다는 것도 중요한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작품의 잔해는 전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의 모든 회화 작품은 인간의 머리를 제외한 몸만 표현됐다. 이 작가는

"여기서 몸은 금기를 원하는 현대인의 욕망을 의미한다. 몸만 표현한 것은 문명사회에서 억압받는 현대인의 저항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회화 작품 <Black Nude [stop sorry for yourself]>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에는 청년들이 겪는 고통, 여성·남성으로서 겪는 고통에 대한 저항이 담겼다. '자괴감 갖지마'라는 제목의 의미처럼 사회의 억압과 프레임을 남성의 몸을 빌려 표현함으로써 관객에게 위로를 전한 것이다.

본 전시의 이름이 '엄마의 이상한 P'인 것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이성 작가 본인이 엄마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엄마'라는 단어에 가부 억압하는 사회에 대한 그녀의 반항이 굵글하다면 본 전시를 방문해보는 게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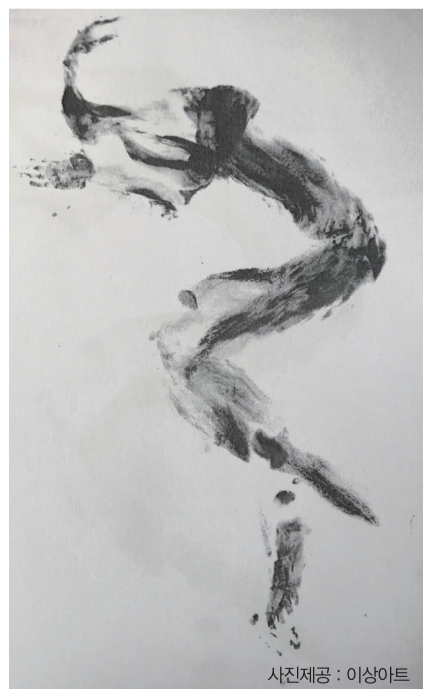
장선아 기자

suna0913@hansung.ac.kr



사진제공: 이상아트

▲석고 작품 <The Nude, Dead mask>의 퍼포먼스 전 후 모습



사진제공: 이상아트

▲회화 작품 <Black Nude [stop sorry for yourself]>

# 우리의 소리가 눈송이가 되어 세상을 뒤덮을 때까지

## 국악음반사 '레이블 소셜' 설현주 대표

24절기 중 20번째 절기, 소설(小雪). 이날은 첫눈이 내린다고 해서 '소설'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즉, 소설은 일생 형체를 이루지 않고 바다로 흘러들어가, 증발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대기를 떠돌던 물이 처음으로 '눈송이'라는 형태를 이루는 날이다. 이렇게 물이 눈으로 변해 사람들에게 다가가듯, '레이블 소셜' 대표 설현주(35) 씨는 물과 같이 형태가 없는 '국악'을 눈송이처럼 음반에 담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설 대표는 작년 6월 1일부터 국악전문 음반사인 '레이블 소셜'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레이블 소셜은 전통음악을 음반으로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악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음반의 각종 프로모션과 국악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레이블 소셜을 설립하기 전, 설 대표는 악단에서 10년 동안 활동했던 '국악인'이었다. 그는 다른 악기의 반주를 담당하는 타악기를 전공했다. 반주자의 역할상 그는 전통음악의 많은 장단을 이해하고 있어야 했고, 합주를 함께하는 다른 악기들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전공 덕에 국악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설 대표는 기존에 존재하는 국악 음반들에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

“아무래도 전통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국악기가 가진 본연의 소리를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존 음반을 들어보면 악기가 내는 소리인데도 잠입인 줄 알고 사쳐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점이 전공자 입장에서 매번 아쉬웠어요.”

이런 기존 음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그는 같은 타악기를 전공한 국악인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국악 음반을 제작하게 됐다.

“녹음실은 많기 때문에 녹음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국악도 어디서든 작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국악을 '제대로' 녹음하기는 힘들어요. 악기마다 소리가 나오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크 위치를 신중하게 설정해야 하고, 공연을 위한 연주와 녹음을 위한 연주가 어떻게 다른지 연주자들에게 알려줘야 하거든요.”

설 대표는 국악 음반 작업과 함께 앨범 기획, 디자인, 유통, 홍보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레이블 소셜은 '국악음반사'라는 이름 외에도 '국악전문기획사'란 이름으로도 불린다.

“악단에 있을 때, 악기 연주 외에도 많은 일을 했었어요. 공연 기획, 디자인까지 신경 썼죠. 하지만 그중에 작은 거 하나 고치는 것조차 굉장하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점이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과정을 한번에 관리하면서 운영한다면 훨씬 수월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지금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설립한 지 약 300일을 넘긴 레이블 소셜은 지금까지 60개의 음반을 발매했다. 일주일에 하나 이상 음반을 발매한 셈이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음반 제작을 하는 모습을 보면 국악 음반 시장이 꽤 규모가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설 대표가 뛰어난 시장은 그야말로 '황무지'가 따로 없다.

1년에 최소 4,000개 이상의 음반이 나오는 대중음악에 비해, 국악 음반은 250개가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국악인이 음반 작업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다.

“실용음악이나 인디음악가들은 음반을 만들어 프로필을 채우면서 시작해요. 그런데 국악은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음반을 내기보다는 스승이나 국악 관련 단체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문화죠. 수학하던 스승의 공연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알리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국악인이 음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설 대표는 음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음반을 통해 국악의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국악은 오랜 시간 이어져온 전통음악이지만,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국악을 총망라한 국악자료집은 없다.

“가야금만 해도 '유파'라고 해서 전수자마다 리듬이 모두 달라요. 가야금뿐만 아니라 악기, 판소리마다 종류가 정말 많은데, 이것들이 제대로 정리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음반 작업을 통해 이런 데이터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설 대표는 SNS 계정에 빼먹지 않고 음반에 수록된 곡을 소개한다. 단, 곡을 소개할 때는 아티스트의 프로필도 함께 게시한다. 음반과 국악인들을 모두 홍보하기 위함이다. 그는 음반 작업이 국악의 데이터 수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악인에게도 많은 도움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한다.



“요즘에는 음반을 내는 것이 국악인에게도 득이 돼요. 음반을 발매하면 프로필에 쓸 이력이 생기는데, 그 프로필을 보고 국악 방송 섭외가 들어오고 공연 기회도 생기더라고요. 음반의 발매로 국악인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 거죠.”

한편, 설 대표는 수익을 얻기 힘든 국악인들의 현실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그의 주변에는 생계를 위해 음악을 포기하고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국악 전공자들이 많다고 한다. 게다가 대학에서도 국악 관련 학과가 사라지고 있어 전수자들도 적어지고 있다. 날이 갈수록 국악인의 숫자는 점점 더 줄어가는 실정인 것이다. 이를 막고자 설 대표는 특히 청년 국악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이 국악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레이블 소셜 사무실 한쪽에 국악기들이 놓여 있다. 이 악기들은 레이블 소셜과 협력하는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다.

이제 막 내리기 시작한 첫눈과도 같을지 모른다. 그러나 설 대표로 시작된 이 눈송이들은 차곡차곡 땅에 쌓이기 시작할 것이고, 머지않은 그 어느 날 마침내 온 세상을 새하얗게 뒤덮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언 기자

shell990824@naver.com



▲연주자들이 음반 녹음을 위해 각자 악기를 다루고 있다. 사진 제공: 레이블 소셜



▲설 대표는 국악 중에서도 전통음악을 최우선으로 한다. 전통을 먼저 잘 알아야만 창작국악이나 퓨전국악도 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돈 키호테

## 경제 미디어 스타트업 '어피티' 박진영 대표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 키호테>에서는 과장 기사 돈 키호테가 등장한다. 비록 소설에 등장하는 그의 행위는 우스꽝스럽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 망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전의 아이콘'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돈 키호테처럼 맹렬하게 청춘의

한복판을 질주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경제 미디어 스타트업인 '어피티(Uppity)'의 박진영(29) 대표다.

박 대표가 설립한 어피티는 복잡한 경제 상식을 알기 쉽게 풀어 20·30대에게 뉴스테터로 보내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경제력은 자존심의 근본'이라는 박 대표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사실 박 대표가 원래부터 스타트업을 꿈꾸지는 않았다. 그의 꿈은 언론인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신문을 읽었던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김주하, 손석희를 동경하며 기자의 꿈을 키웠다.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학보사에 입사해 편집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처럼 착실하게 기자의 꿈으로 나아가던 박 대표가 미디어 스타트업에 뛰어든 계기는 정말 뜻밖의 일이었다. 교양수업 강사를 인터뷰하다가 돌연 제의를 받은 것이다. “학보사 기자 시절 (교양수업 강사였던) 강정수 박사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터뷰 후 갑자기 '미디어 스타트업을 만들어보지 않겠냐' 제안 받았어요. 당시 그를 수업에서 강사로서만 만나 데면데면했는데,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매우 당황했어요. 하지만 고민해보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학보사 동료와 '미스핏츠'를 만들었죠.”

이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길에 박 대표는 과감하게 투신했다. 심지어 이때는 기본적인 동영상 편집조차 모르던 시절이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친구의 도움을 빌려 영상 편집의 기초부터 배워갔다.

“사실 저는 영상 편집하는 법을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동료에게 속성으로 과외를 받기로 했죠. 과외가 끝나자마자 '일주일 내로 영상 한 편을 만들라는 과제를 주더라고요. 마감 기한을 맞추려고 꾸역꾸역 하다 보니 저절로 실력이 늘어난 것 같아요.”

당시 미스핏츠는 20·30세대의 솔직한 이야기를 가감 없이 담아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미스핏츠가 성공기도를 달릴수록 박 대표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났다. 당시 그는 공동대표로서 행정사무를 주로 수행했는데, 이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결국 그는 미스핏츠의 성공을 뒤로하고 나와 여러 미디어 스타트업을 전전했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미스핏츠에서 나온 이후 '내가 다시 미디어 스타트업 대표를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 정도로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 기간 동안 기업에서 콘텐츠 외주 작업을 맡았는데, 이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자신감이 불어 다시 도전하게 됐어요.”

어피티 역시 박 대표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다. 경제 상식이 부족한 청년들이 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지만, 이전까지 한 번도 경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는 오기를 발휘해 수능 공부하듯 경제 지식을 정복하며 콘텐츠를 만들었다.

이러한 박 대표의 행보는 마치 돈 키호테와 같은 도전의 연속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비록 배경 지식이 전무하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해도, 사회적인 관심을 주도할 수 있고 자신도 흥미있다 느끼면 일단 도전했다는 것이다. 그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이러한 조언을 남겼다.

“저는 우리나라에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과감하게 도전하지 않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실패해도 좋으니 일단 도전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박 대표는 자신을 '또 다른 언론인'이라고 표현한다. 비록 신문사나 방송사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만든 콘텐츠를 통해 20·30세대의 고민과 생활사를 담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청년들이 안정을 추구하며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시대. 그 속에서 그의 모습은 돈 키호테의 우스꽝스러움을 넘어 강렬한 불길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릴 것이다.

윤희승 기자

yooning@gmail.com



# 디지털 수사의 결정적 '열쇠', 디지털 포렌식

## 컴퓨터 기술과 법률 지식이 만난 '수사의 꽃'

지난달,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씨의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면서 그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이 연일 화제가 됐다. 이 씨의 성접대 알선 발언과 경찰과의 유착 소지가 있는 대화 내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 세상 속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사건의 열쇠를 거머쥔 것은 바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기술이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PC·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 및 추출해, 이를 바탕으로 범죄의 단서와 증거를 찾아내는 수사 기법이다. 강구민(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초빙교수는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이 컴퓨터 기술과 법률 지식 모두를 겸비해야 한다"며 "이는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개념을 넘어 법적 효력을 취득해 데이터에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고도의 수사기법이다. 이 기법이야말로 수사 '의 꽃'이라고 설명했다.

### 디지털 증거는 법적 효력 확보가 '핵심'

디지털 포렌식으로 발견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먼저, 법원이 피의자에게 '디지털 저장매체를 분석하겠다'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 이어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관련된 모든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한다. 저장매체 속 모든 정보는 디지털 포렌식의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되고,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춘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다. 여기서 디지털 포렌식은 '증거 수집', '증거 분석', '증거 제출'의 세 단계를 거친다.

수사기관은 증거 수집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도출하며, 이때 이미징(Imaging) 기술이 활용된다. 이는 디지털 데이터를 복제한 후 모든 데이터를



목록 형태로 변환시키는 기술이다. 변환된 데이터는 증거 분석에 사용된다.

증거 분석 시에는 증거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는 '쓰기' 권한이 없는 분석 도구를 이용한다. 이는 원본 훼손 및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종 증거 제출 단계에서는 증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자의 전문성이 증명돼야 한다. 또 검증된 포렌식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은 주로 국내외에서 공인되거나 검증된 증거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행한다.

한편, 이 모든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유지는 필수적이다. 이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정에서 제출되기까지 해시값

(Hash Value)의 일관성으로 증명할 수 있다. 해시값이란 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 수치로, 일반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전자 지문'이라고 불린다. 만약 증거 분석 도중 해시값이 바뀌어 처음과 다른 수치가 나오면 이는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얻지 못한다.

이같이 디지털 증거는 ▲증거의 원본성 및 무결성 ▲분석자의 전문성 ▲포렌식 도구의 검증성이 모두 충족돼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

### 방패와 창, '안티포렌식'과 '안티안티포렌식'

한편, 디지털 포렌식에 맞서 '안티포렌식(Anti-Forensics)' 기술이 등장했다. 이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를 훼손하거나 차단하는 기술이다. 이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파괴·조작·은닉하거나, 쉽게 찾을 수 없도록 암호화해 디지털 포렌식으로부터 데이터 유출을 방어할 수 있다. 또 사용자의 사용 흔적을 제거하거나 시간 정보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도 사용된다. 디지털 코드를 읽기 어렵게 하거나 포렌식의 분석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도 안티포렌식의 예다.

이에 맞서 '안티안티포렌식(Anti-Anti-Forensics)' 기술도 등장했다. 안티안티포렌식은 안티포렌식을 재공격하는 기술로, 이를 활용하면 안티포렌식에 의해 암호화됐거나 숨겨진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즉, 데이터를 재복구하거나 은닉된 데이터를 탐지하고, 패스워드를 추적해 안티포렌식에 의해 감춰진 정보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때 원본적으로 디지털 정보는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초기화하는 '로우 레벨 포맷(Low Level Format)'을 했거나, 저장매체를 완전히 파쇄하지 않았다면 복구가 가능하다. 즉, 일반적인 포맷을 했더라도 안티안티포렌식 기술로 데이터를 일정 부분 복구하는 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과 안티안티포렌식 기술로 모든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 교수는 "이 기술들로 삭제된 정보를 모두 복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제조사에서 애초에 보안성을 강화해 출시된 스마트폰의 경우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고도화된 인터넷과 IT 기술의 발달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강제성을 띠는 수사 분야 이외에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의 공공기관에서는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하는가 하면, 일반 기업에서는 회계·감사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사용한다. 강 교수는 "향후 탐정업법이 합법화되면 민간영역까지 확대돼 디지털 포렌식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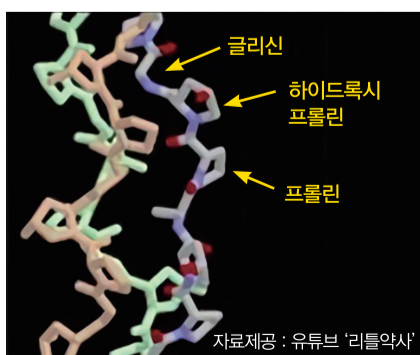
하지만 아직 디지털 포렌식은 갈 길이 멀다. 민간영역의 개인 정보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디지털 포렌식 업체 승인에 일정한 요건을 부여하거나 분석자의 윤리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은 아직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디지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디지털 포렌식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다.

장선아 기자

sun0913@hansung.ac.kr

# 민는 닭발에 발등 찍힌다? 몰랐던 콜라겐의 진실

'야식'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는가. 치킨, 떡볶이, 닭발 등 대표적인 야식 메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것이다. 그중에서 닭발은 피부에 좋은 콜라겐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맛'과 '피부 미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원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으로 여겨진 음식이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것과 달리, 닭발의 콜라겐은 피부미용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한다. 그간 '피부에는 닭발'이라고 믿어왔던 사람들의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먹는 닭발은 피부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일까?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는 글리신(G), 프롤린(P), 하이드록시프롤린(H)

### 콜라겐, 넌 누구냐

콜라겐은 인체의 구성성분 중 하나인 단백질의 약 30%를 차지하는 요소다. 콜라겐은 뼈, 연골, 피부 등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체내 조직을 지지하는 역할도 한다.

이에 대해 정현석(아미코젠 케어뉴트라 사업팀) 팀장은 "건축에 비유한다면 콜라겐은 건물의 뼈대, 즉 골조 역할을 함으로써 피부 속 조직의 지지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 내 콜라겐이 빠져나가 피부 조직이 붕괴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탄력 저하와 같은 피부 노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콜라겐은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현재까지 밝혀진 콜라겐의 종류는 총 28가지이다. 각 유형의 콜라겐은 체내로 흡수됐을 때의 역할과 용도가 각각 다른데, 이중 'TYPE-1'이 피부에 전달돼 피부조직 내 콜라겐의 주원료로 쓰인다.

### 닭발 속 콜라겐은 어디로 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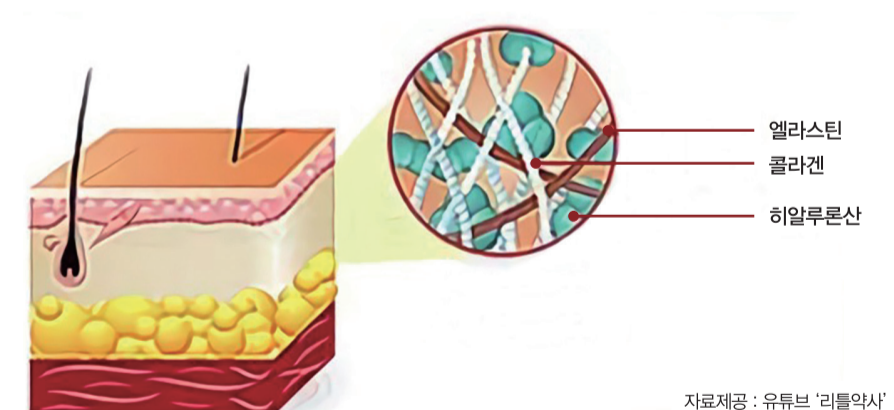
음식의 형태로 섭취한 콜라겐은 주로 소장에서 흡수된다. 이때 콜라겐은 그대로 흡수되지 않고 더 작은 크기로 분해·흡수된다. 과정에서 콜라겐의 구조는 'G-P-H 구조'로 바뀌며 우리 몸속 주요 혈관으로 전달된다.

G-P-H 구조란 글리신(G) 아미노산, 프롤린(P) 아미노산, 하이드록시프롤린(H) 아미노산이 연결된 3차원 구조다. 이는 세 아미노산끼리 서로 강하게 결합된 구조로 소화효소가 이 구조를 완전히 분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정 팀장은 "소장에서 분해된 소화효소에 의해 글리신(G)이 잘린 P-H 형태로 혈액에 흡수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흡수된 콜라겐은 혈관을 타고 혈액, 연골, 세포 등 몸 곳곳에 분포된다. 그중 일부가 피부에 도달해 주름 개선 등의 효과를 낳는 것이다.

### '작은' 콜라겐이 피부를 구한다

일반적으로 닭발이나 돼지 껍데기, 생선 껍질 등의 식품에 함유돼 있다고 알려진 콜라겐은 '고분자 콜라겐'이다. 고분자 콜라겐은 분자량이 약 30만 Da(달톤, 분자량을 표기하는 단위)에 달하며, 이 때문에 체내에 직접적인 흡수가 매우 어렵다. 또한, 흡수되더라도 분자량이 매우 커 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뿐만 아니라 미처 체내에 흡수되지 못한 콜라겐은 그대로 체외로 배출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정 팀장은 "닭발에 함유된 콜라겐은 분해·가공



자료제공 : 유튜브 '리얼약사'

▲우리 피부의 표피층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은 엘라스틴·콜라겐·히알루론산 등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엘라스틴은 피부 탄력을, 히알루론산은 피부 수분 유지를 담당하며, 콜라겐은 이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지하는 역할이다.

과정이 선행되지 않은 콜라겐'이라며 "소장 내에서 흡수하기엔 분자량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콜라겐을 1,000Da 이하로 매우 작게 분해한 저분자 콜라겐이 개발되고 있다. 더 나아가 미용 업계는 500Da 크기에 이르는 콜라겐 제품을 앞다투어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고분자 콜라겐은 분자량이 커 체내 흡수가 어렵고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흡수 속도가 느린 반면, 저분자 콜라겐은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분해되는 시간이 단축되면서 흡수되는 속도도 빨라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제부터 야식 메뉴를 생각할 때 굳이 '피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만약 피부를 위한다면 아밤에 닭발을 먹을 것이 아니라, 저분자 콜라겐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이로울 테니 말이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 삼 학 송 ·

# 배려를 바라는 자, 근거를 증명하라?

요즘 웬만한 대중교통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석이 마련돼 있다. 지하철의 경우 장애인·노약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좌석이, 버스의 경우 노약자·임산부를 위한 좌석이 별도로 지정돼 있다. 특히, 지하철 교통약자 배려석은 일반석과 분리돼 있고, 이 배려석과는 별개로 일반석에도 임산부 배려석이 추가로 지정돼 있다.

최근 이러한 교통약자 배려석을 두고 갑론을박이 많다. 몇 년 전만해도 무조건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힘들더라도 배려석만은 비워두는 것이 당연한 풍조였다. 그러나 요즘은 멀쩡한 좌석을 비워두고 서서 가느니, 빈 배려석에 앉아 있다가 교통약자가 승차하면 자리를 양보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입장이 눈에 띄게 늘었다.

비록 지금은 학교 인근에서 자취를 하고 있지만, 인천에 위치한 집에서 학교까지 대중교통으로 통학을 하던 때에는 나도 후자의 입장에 공감했다. 그때 나는 배려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배려를 법이나 제도로써 강요한다면 그 배려가 진정한 의미 있는지 의문스러운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당시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오류가 있었다.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교통약자가 나타나면 자리를 양보한다손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교통약자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우리 눈으로 알아볼 수 없는 교통약자가 배려석에 앉으려면 스스로 교통약자임을 증명해야만 하는 걸까?

보통 임산부의 배는 임신 13주차부터 부르기 시작한다. 그러나 옷을 입은 상태에서 누구든지 알아볼 정도로 티가 나려면 최소

임신 5개월은 지나야 한다. 즉, 임산부 스스로 본인의 임신 여부를 밝히지 않는다면 임신 기간 10개월 중 절반은 먼저 알아보기 매우 어렵다. 더군다나 10대 또는 20대 초중반의 앳된 임산부라면 아예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누군가는 '임산부 배지를 달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렇다면 배지를 달았는데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들이 배려석에 앉아 자고 있는 일반인을 깨워, 또는 이어폰을 낀 채 휴대폰을 주시하는 사람을 크게 불러 자리 양보해주세요요'라고 부탁해야 할까?

임산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비장애인처럼 보이는 장애인이 더러 있다. 대표적으로 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 환우들이 그렇다. 이들의 주요 증상은 복통을 동반한 설사로, 모두 만성 질환인 동시에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또, 장애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다. 증세가 극심한 경우 장루(인공항문), 즉 대변 주머니를 차고 다닌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다. 이들이 배려석에 앉으려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저는 크론병 환자입니다' 또는 '저는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기라도 해야 할까?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어떤 병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텐데 말이다.

임신도, 지병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중 일부다. 자리에 앉아 가고 싶으면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그 근거를 증명하라는 말,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분명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강예림 편집국장



오랜 시간 학교 앞 골목을 지켰던 '한성분식'이 얼마 전 문을 닫았다. 한성분식과 같은 골목에 위치한 식당을 운영하는 업자들은 한성분식의 폐업사유로 삼선제5구역 재개발 사업을 언급했다. 우리학교 앞 상권의 거의 대부분이 재개발구역으로 예정된 현재, 학교 앞 식당가에서의 추억은 이처럼 사진으로나마 남겨질 예정이다.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한 번쯤 식당가에서 새로운 추억을 남겨보는 것은 어떨까. 이기연 기자

## 기자수첩

최근 유튜브에서 '막례는 가고 싶어도 못하는 식당'이라는 영상을 봤다. 영상은 올해 73세인 유투버 박막례 할머니가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는 과정을 담고 있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무인주문기 앞에 섰지만 화면에 처음 표시된 '주문하시려면 터치하세요'라는 문구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그 이후는 노인이 보기에는 너무 작은 글자와 외래어를 알아볼 수 없게 해매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주문 시간 초과로 인한 몇 번의 초기화 끝에 주문에 성공한 그는 "앞으로 무인주문기가 있는 식당에는 가지 말아야겠다"며 낙담했다.

## 편리가 만들어낸 소외

디지털 기기는 편리하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금세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무인주문기에 의해 노인들은 거꾸로 주문·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8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에 따르면 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장노년층 등 4대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인 대비 평균 68.9% 수준이다. 그중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63.1%로 가장 낮다. 물론 이 문제는 비단 노년층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무인주문기의 높이가 주이 용객인 20~40대에겐 맞춰져 있어서, 키가

작은 어린이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기계를 다루기도 쉽지 않다. 또 무인주문기 시스템이 시각적인 요소에 의존하고 있는 특성상, 과연 시각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자가 도태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당장 '편리함'이란 그늘에 숨어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 돌아봐야 할 때다.

정수민 기자

### #낙산세컷\_전시실\_없는\_전시\_어떻게?

윤희승 기자

### < 학생회비 납부, 당신의 생각은? >

〈편집자주〉  
우리학교는 입학 후 1회에 한해 단과대학별 최소 9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의 학생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또, 매학기 등록 시 총학생회비 1만 원을 자치비 명목으로 청구한다. 이러한 학생회비 납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김재욱(기공 2) 학생  
신입생 때 학생회비를 납부하면 4년 동안 개강파티, MT 등의 행사에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학생회비 액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수(기공 2) 학생  
보통 교내 행사는 학생회가 직접 주관하거나 학교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이때 학생회의 활동에 따르는 비용은 학생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학생회비가 학생들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한성대신문  
네, 그렇군요. 김재욱 학우는 학생회비의 액수 대비 혜택이 적절함을, 이용수 학우는 학생회비가 궁극적으로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자원임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 계신가요?  
한성대신문사

김유림(인문 2) 학생  
학생회비 금액이 부담스러운 학우들도 분명 있기 때문에 학생회비는 개인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만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회 활동이나 학교 행사에 성실히 참여할 생각이면 학생회비를 납부해 여러 혜택을 누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학생회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김제영(인문 2) 학생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학생회비를 납부했지만 체감상 그만큼의 혜택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느껴 후회하는 동기들이 많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학생회비를 굳이 납부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 # 😊 전송

# #제13회\_사진공모전



좋아요 4,186개

한성대신문 #나\_한성대\_구성원인데\_요즘\_동년배들\_다\_사진공모전\_응모한다

### 응모기간

4월 15일(월) ~ 5월 10일(금), 오후 1시 ~ 6시

### 참가대상

본교 전 구성원 (학부 · 대학원 재학생, 교수 및 직원)

### 주 제

자유 (주제에 제약 없음)

### 응모방법

- ① 학교 홈페이지 > 커뮤니티 한성 > 한성공지 > 공지사항에서 '한성대신문사' 검색
- ② 21번 공고 첨부파일(제13회 사진공모전 응모 신청서 양식) 내려받아 작성 및 인쇄
- ③ 한성대신문사에 내방해 응모 신청서 및 응모작 직접 제출
  - \* 응모작 규격 : 8X10in(20.3X25.4cm) 인화 사진
  - \* 한성대신문사 위치 : 본교 학생회관 제1별관 2층 (중문 우측관 앞 IBK기업은행 건물 2층)

### 수상작 발표

한성대신문 제546호 (6월 3일 발행)

### 시상내역

최우수상 (1명) - 상장 및 상금 40만 원  
佳作 (1명) - 상장 및 상금 20만 원

### 문의사항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강예림 편집국장 010-8724-0441

- ※ 1인당 최대 3점 응모 가능합니다.
- ※ 타 사진공모전 출품작의 중복지원을 불허합니다.
- ※ 스마트폰 촬영 사진도 규격 준수 시 응모 가능합니다.
- ※ 제출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이 진행합니다.
- ※ 최우수상이 없을 시佳作만 시상합니다.
- ※ 응모 및 수상자에게 별도의 비교과 포인트는 지급되지 않습니다.